



문 : 최근들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인지요.

답 :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 향상과 더불어 질병관리 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1. 레지오넬라 병(Legionellosis)

레지오넬라(legionella)는 그람 음성균으로 혈청학적으로는 30여 아종이 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열이 갑자기 상승하며, 마른기침, 소화장애등을 보일수 있고 목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심한 폐렴이나 설사, 뇌염등이 올 수 있고 급성 신부전 증도 초래할 수 있다.

주로 노년층에 호발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3배정도 감염율이 높고, 흡연자, 면역결핍자, 유행지역 여행자, 건축 공사장 인부등에서 호발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에서 발병률이 높다.

이 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는 않는 특징을 지니며 하절기에 유행하고, 환경조절 장치등에 의하여 전파 된다고 볼 수 있다.

에어콘 냉각탑등에 이용되는 물에 대하여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냉각탑속의

이끼 제거를 하는 등의 주위환경의 위생 강화에 힘씀으로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AIDS란 HTLV로 명명되는 virus가 면역에 관여하고 있는 T세포를 공격하여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능에 결함을 주어 유발되는 질환으로, 환자와의 성적 인 접촉이나 환자의 혈액, 오염된 주사침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체 양성자수는 미국에만도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항체 양성자는 5년 이내에 5~19%가 환자로 진행된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약 85% 이상이며 성적 활동기인 20~50세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95% 정도가 난잡한 성행위자나 동성연애자, 상습적인 주사 약물 중독자,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는 자에서 발견되었다.

AIDS의 증상으로는 10% 이상의 체중 감소, 1개월이상의 만성적 설사, 간헐적 또는 지속적 발열 및 해소등을 보이게 되고 병이 진행되면 임파선이 커지고 여러 가지 피부염과 카포시 육종이 동반된다.

AIDS의 진단은 임상증상과 환자의 혈액내에서 virus에 대한 항체 존재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가능하다.

AIDS의 치료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이므로,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력장애 요인에 대한 눈 보호요령

학 교에서 책을 읽을 때 조명은 밝을 수록 잘 보이며 1,000룩스까지는 직선적 비례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요소로

- 1) 광원이 밝을 수록
- 2) 시선이 광원에 접근할 수록
- 3) 광원과 배경의 어둡은 관계가 심할수록 잘 보이게 되지만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30~40% 정도 주위 밝기를 독서면보다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밝기의 조도는 증가되는 경향이이며, 중년기에서 노년기의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 공부방 보다 밝게 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시력을 보호합시다.

이유는 눈 속 수정체의 탄력 약화로 노안(돋보기)이 나타나면서 빛의 투과가 감퇴하기 때문이다.

독서 할 때 몸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누워서 책을 보거나, 흔들리는 차 속에서 보는 경우, 또는 책상이 너무 높아서 책을 지나치게 가까이 보는 행위는 모두 눈에 해로운 것이다.

책은 눈에서 30cm 떨어져서 봐야하며 광원은 왼쪽 위에서 비추게 해서 글 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한다. 따라서 독서하는 사람의 키에 따라 책상과 높이가 달라져야 한다.

□가성근시 등 일시적 시력장애의 교정방법

가 성근시란 글자 그대로 진짜 근시는 아니며 다만 눈 속 조절근의 경련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절경련은 어린이들이 장시간에 걸쳐 과도한 독서를 해도 나타나지만, 안구좌상, 축동제 점안, 히스테리, 뇌의 기질적 장애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성근시는 눈을 쉬면 저절로 회복될 수 있으며, 눈이 나쁜 학동기 어린이는 방학 때 안과전문의에게 가서 눈의 진찰과 함께 굴절 검사와 조절근 마비제를 점안 치료하여 가성근시를 치유한 다음 진성의 근시가 있게 되면 굴절검안을 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안경을 맞추면 된다.

AIDS는 사회적인 접촉이나 악수같은 피부접촉, 수영장, 목욕탕등의 공동이용, 포옹, 식기류등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된 예가 없다.

그러나 성관계를 갖거나 주사기, 면도기, 칫솔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예방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된 성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며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과는 성 접촉을 피해야 하고 감염우려자는 헌혈 등을 삼가해야 한다.

(근협 서울지부 부속의원장 이증범박사)